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노력 아닌 은혜로 얻는 ‘의’

기독교지도자연합(CLIF) 설립자 박옥수 목사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크리스천 실태 및 신앙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10명 중 4명은 자신이 교회는 나가지만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돌아가셨다고 답한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범죄하고 나약한 자신을 마주하며 괴로워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교인들에게 회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다 지쳐서 명목상 기독교인이 되거나 교회를 등지고 만다.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들은 기독교지도자연합(CLIF) 목회자들이다. CLIF와 이곳에서 만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올해 3월 말 10여 개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CLIF 월드 컨퍼런스 참석차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모두 소속이 다른 교단 대표이거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 각국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 기자회견’을 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기독교 개혁과 연합을 촉구했다. 이후 2018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첫 모임인 ‘기독교지도자연합(이하 CLIF)’을 출범시켰다.

CLIF는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기 때문에 CLIF를 만난 목회자들

종교개혁 500주년 맞은 2017년 박옥수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 서울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선언

이듬해 출범 목회자 단체 CLIF 각국서 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성경·성경 보는 눈 달라졌다” 목회자들 변화된 간증 ‘풍성’



행사장 로비에서는 성막 전시가 열렸다.



박옥수 목사가 지난달 23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CLIF 월드 컨퍼런스 메인 강연 시간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

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에프레인 무뇨즈 목사는 “CLIF를 통해 히브리서 10장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 정확히 배웠다. 그동안 실존하는 것이 아닌 그림자에 너무 집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라고 전했다. 이웃을 살피고, 옷을 벗어주라고 설교해왔다. CLIF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원’으로 본 적이 없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미국 샌안토니오의 루벤 맨데즈 목사는 “CLIF를 만난 후로, 나의 설교 방식과 성경을 읽는 방식이 바뀌었다. 마치 내가 낀 안경이 아주 더러웠는데 누군가 그것을 깨끗이 닦아준 것 같다. 내 마음이 꼭 이와 같다. CLIF에서 메시지를 들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CLIF 월드 컨퍼런스의 메인 강연자는 기쁜소식감독교회 박옥수 목사다. 그는 CLIF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박옥수 목

사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 인간이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설교한다.

박옥수 목사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맞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 성경과 반대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사함의 확신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쁜소식선교회는 정확한 복음과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성경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광주, 인천, 대구, 서울에서 성경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광주전남 시민들을 위해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광산구에 있는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매일 오전 10시, 오후 7시 하루에 두 차례씩 3일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각국 목회자들의 간증과 박옥수 목사의 설교 그리고 신앙상담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채널 굿뉴스TV, 굿뉴스TV global을 통해 6개 국어로 생중계된다. /주홍철 기자

박옥수 목사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말해”

‘영원한 속죄’ 주제로 열린 뉴저지 CLIF 월드 컨퍼런스

지난 3월 미국 뉴저지 월드오브블루호텔에서 열린 제9회 CLIF 월드 컨퍼런스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목회자 1,500여 명으로 북적였다.

컨퍼런스는 임파워먼트 토크, 성막 마스터 클래스, 주제 강연, 박람회, 조찬기도회, 팹캐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 1층 로비에서는 큐레이터가 성막의 각 기구를 설명했고, 특별히 속죄 제사를 재현하는 ‘성막 팝업쇼’가 열렸다.

팝업쇼에서는 구약시대 속죄 제사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속죄’의 과정과 연결지어 소개했다. 참관하던 목회자들은 속죄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감탄했고, ‘영원한 속죄’가 선포될 때는



컨퍼런스 오전에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

기뻐하고 환호했다.

뉴저지 리처드 웨스트팔 목사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씻으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 사함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분명히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옥수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성막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일산 킨텍스서 모인 2만여 명

지난 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한국기독교연합(KCA)이 주최하고 기독교지도자연합(CLIF)이 주관한 ‘2026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예배는 현장 참석자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계 각국 교회와 가정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참여했다. 각국 교단 지도자들도 온라인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 세계 성도 모두를 위한 것임을 밝혔다.

찰스 플라우스 미국 국제믿음선교교회 비숍은 “부활절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치러진 그 크신 대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한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서로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기쁨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박옥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을 나눈다”고 말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선보인 부활절 콘서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부활의 의미를 다양한 연출과 구성으로 전달해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이날 연합예배 주 강사 박옥수 목사는 로마서 3장 23절-24절을 읽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날부터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날 이끌어주셨다. 말씀 믿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면 ‘작은 예수’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2026.5. 3.(일) ~ 5(화) 밤 7:00, 낮 10:30

광주문화체육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6)

WERE YOU THERE
부활절 콘서트

성막 전시회

주최 | KCA 한국기독교연합 주관 | 기쁜소식선교회 문의 | 062-941-8503 www.bibleseminar.kr